

차지사 인사실협 무리수였나

신설 '보좌관제' 혼선...적체 심화 하위직 불만 급증

최근 마무리된 전남도 고위직 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도청 내에서는 일부 국장급 인선이 '상식 밖'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신설된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싸고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과 24일자로 각각 실·국장급과 준국장 및 부단

체장급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장 큰 불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전문성'을 강조해 온 박준영 지사의 평소 소신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소 일을 열심히 한다는 평을 받은 이모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일선 부단체장을 원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인사 직후 부인 간병을 이유로 휴직원을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인사불만으로 받아들

이고 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 파견 복귀자가 서기관급 이상만 10명에 이르는 데도 단 2명만 교육을 보내 인사적체가 심화되면서 하위직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평소 교육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온 박 지사의 뜻에 따라 교육인원을 최소화하고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보좌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

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일선 실·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경우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다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육상왕'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청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적으로 수긍하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건교장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현장 방문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맨 오른쪽)이 25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현장에서 전남도 관계자로부터 혁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당신은 진정한 公僕이었소”

(공복)

퇴임하는 박용규 나주 부시장에 부임 반대했던 노조 찬사



최근 전남도 인사에서 정년을 1년여 앞두고 공로연수를 신청한 박용규(사진) 전 나주부시장에 대한 후배 공무원들의 칭송이 이어져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 전남도청 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무원노조 임진관 나주시지부장이 쓴 박용규 전 나주시 부시장을 칭송하는 글이 올랐다. 특히 나주시지부는

2005년 7월 박 전 부시장 부임 당시 취임식을 저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터라 더욱 의미가 컸다. 나주시지부는 박 전 부시장이 2004년 공무원노조 총과업 당시 노조원들의 징계를 담당했던 전남도 총무과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임에 반대했었다.

임진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은 “박 전 부시장이 떠나는 이임

식에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며 “조합원들이 아름답게 떠나는 부시장을 자발적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박 전 부시장이 훌륭한 인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항상 인간적으로 직원들을 대했고 노조 탄압 상황에서도 균형감을 갖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많은 댓글이 이어지면서 박 전 부시장에 대한 찬사와 건강을 빌었다. ‘행복한 공무원’이라는 이는 “박 전 부시장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청백리”라며 도청 과장으로 재직시 민원인의 선물을 공무 출장시 받은 선물을 반송한 사례, 뒷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편에 섰던 사례를 들려 존경심을 나타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간척지 경작 말고 장기임대 활용”

박경정 전문위원 ‘영산강 3단계 간척지’ 토론회 주장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 예정부지인 영산강 3단계 간척지를 경작지로 사용하지 말고 장기임대해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영산강 3단계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는 박경정 민주당 정책위원은 농림해양수산 전문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경작을 위해 조성된 간척지를 J프로젝트 같은 지역종합개발계획 추진이나 대규모 영농을 위해 장기임대하는 것이 토지이용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생산비가 가운데 땅값이 48.

5%를 차지하고 농지구입자금 융자조건이 불리하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기대할 수 없어 경작 대신 간척지 활용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박 위원은 한국농촌공사 기존의 간척지 매각 대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조성해 새로운 간척공사를 벌여왔지만, 추가로 대규모 농지조성 사업을 벌이는 게 불가능한 만큼 영산강 3단계 간척지를 장기간 빌려줘 임대료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했다.

농촌공사가 현금화한 농지관리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은 3%의 저리에 불과해 이 방식이 농지관리기금 운영 차원에서라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J프로젝트 사업 중심지역인 영산강 3지구는 서남권 개발 및 남해안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해양과 대륙간 진출 전초기지로서의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만큼 장기임대를 통한 종합개발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은 현행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등에 한국농촌공사에만 간척농지를 무상양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를 포함하면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관련 법률 개정작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전남도 및 해남지역 주민들의 간척지 조기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관철해 온 농림부 담당 실무자가 참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결과 주목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일선 시·군의 지속적인 출산 장려와 인구늘리기 캠페인, 인구 유입을 위한 경제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 노인 인구 구성비가 갈수록 높아져 지역 생산력 저하와 함께 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커져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남 인구 195만 4천828명

감소세 계속...노인 인구 구성비 갈수록 높아져

말 전남도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195만 4천828명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 2005년말 197만 6천465명에 비해

2만 1천637명(1.1%)이 감소한 것이다. 또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담양·영암·신안군 등 4곳은 인구증가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18곳은 모두 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출생률 감소, 이농 및 직업과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대도시 전출이 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됐다.

이와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31만 6천914명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35년 전통의 특급명품 양파의 연구 개발팀

양생·무충 오가미 식품

특급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파(양파)

양생식품 TEL: 1092(385-3343) 362-6919

호기심 가득찬 눈이 모이는 곳! 호기심 가득찬 손을 기다리는 곳!

- 2007 동물아카데미

호기심 가득찬 눈이 모이는 곳!
호기심 가득찬 손을 기다리는 곳!

1. 호기심 가득찬 눈이 모이는 곳!
2. 호기심 가득찬 손을 기다리는 곳!

1. 호기심 가득찬 눈이 모이는 곳!
2. 호기심 가득찬 손을 기다리는 곳!

1. 호기심 가득찬 눈이 모이는 곳!
2. 호기심 가득찬 손을 기다리는 곳!